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 가장 귀한 소유인 그분의 품속에 계셨던 실제적인 독생자를 그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32)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영원히 증명하였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그대가 구원을 얻어 그분의 왕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희망하십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대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시면 그분은 그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

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얻는 것이며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는 희망과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전화: 061-337-4040; 070-8847-1798

이메일: enter144k@gmail.com

www.3angelsmessage.webs.com

특별한 분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떤 분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계시는 줄 아시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이 놀라운 약속은 바로 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갈 1:4)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해 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양 일백 마리를 소유한 한 목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아흔 아홉 마리와 함께 집에 남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한 목자의 사랑은 양을 찾도록 그를 강권하였습니다. 성경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이야기는 성경의 누가복음 15:2-7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그대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일 4:9)

성경의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을 아주 역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2)

이 시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감당하기가 힘든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기나긴 3 일 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동에 옮기려는 순간에 천사가 그를 정지시켰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12)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가지신 사랑의 실

례(실물교훈)였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는 고통을 면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귀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 대신에 그의 모든 금, 은, 소떼, 양떼, 집, 보물, 소유 등을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실제적인 독생자를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분의 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언 8:22-25)